

대학도서관의 목록이용행태 특성에 관한 연구

-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

유재욱*

目 次

1. 서론	4.2 목록이용
2. 선행연구	4.3 목록탐색
3. 연구방법	4.4 목록이용법 교육
4. 연구결과	5. 결 론
4.1 응답자 특성	6. 제 언

1. 서론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양이 증가할 수록, 또한 도서관 자료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록 이용자는 방대한 도서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열람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도서관의 열람목록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소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안내해 줌으로써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도와주는 도구(tool)의 일종이다. 열람목록은 이용자와 도서관 자료 사이에서 양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자료의 활용을 유도하는 중간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channel)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서관 열람목록은 책자형식, 카드형식, 마이크로피시형식, 온라인형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가장 흔한 형태의 목록은 카드형식이다. 따라서 열람목록을 카드목록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은 현재 도서관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으며, 카드

*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접수일자 : 95. 11. 1.

목록을 온라인목록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카드목록의 질적인 개선없이 카드목록을 온라인목록으로 그대로 전환한다고 할 때 열람목록의 형식이 카드에서 온라인으로 바뀔 뿐 목록의 기능이 향상된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카드목록이 온라인목록으로 전환될 때 카드목록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이 손쉽게 개선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역시 그대로 남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목록에서는 서명을 이루는 각 단어가 탐색대상이 되므로 서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고도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서명 키워드 조합을 할 수 있으므로 마치 주제검색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카드목록에서처럼 주제명을 입력하지 않는다면 온라인목록에서도 주제명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즉, 열람목록의 질적인 향상이 전제되지 않는 목록형식만의 개선은 이용자에게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열람목록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열람목록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카드목록의 이용행태특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온라인목록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대학도서관의 열람목록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가 이화여자대학교(박은자 1981), 전북대학교(강혜영 1982), 경남5개 대학교(최달현 1982) 경기대학교(이의남 1989)를 중심으로 수행된 바 있다. 목록이용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목록이용행태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첫째, 동서, 양서, 분류목록의 이용빈도에서 동서목록이용률이 이화여자대학교는 62.8%, 전북대학교는 64.4%로서 평균 이용율은 63.6%이다.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은 열람목록을 동서자료검색용 위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록이용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목록이용이 쉽다고 생각하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비율은 경기대학교의 44.4%에서부터 이화여자대학교의 68.9%로 심한 굴곡을 보이고 있다. 목록이용을 쉽다고 생각하는 평균비율은 58.7%로 나타나 반수 이상의 이용자들은 목록이용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1〉 선행연구 결과 요약

	이화여대	전북대	경북5개대	경기대	평균
동서목록이용률	62.8%	64.4%			63.6%
난이도(쉽다)	68.9%	68.4%	53.0%	44.4%	58.7%
탐색성공률	70.8%	62.9%		39.0% 56.5%(저자/서명) 21.5%(주제)	57.6%
접근점	① 25.3%	23.4%	31.0%	33.7%	28.4%
	② 57.8%	49.4%	53.0%	51.0%	52.8%
	③ 16.8%	20.2%	16.0%	11.7%	16.2%
번역본표기 (한글/원어)	④ 37.1%	11.9%		32.2%	27.1%
	⑤ 13.4%	34.4%		41.4%	29.7%
	⑥ 50.5%	46.3%		73.6%	56.8%

① 저자, ② 서명, ③ 주제, ④ 원어+한글표기, ⑤ 한글표기, ⑥ 계

셋째, 열람목록탐색시 탐색의 성공률은 각 학교마다 심한 차이를 보이는대도 경기대학교의 경우 저자/서명탐색의 성공률은 56.5%이고 주제탐색시의 성공률은 21.5%라고 보고하고 있어 평균 탐색성공률은 39.0%이다. 전북대는 62.9%, 이화여자대학교는 70.8%의 탐색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목록탐색의 성공률에도 학교마다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내대학 도서관의 목록탐색의 성공률은 평균 57.6%로 나타나 미시간대(Palmer 1972, p.90)와 예일대(Lipetz 1972, p.186)의 각각 탐색성공률 84%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넷째, 열람목록이 제공하는 탐색의 접근점에는 저자, 서명, 주제명, 분류번호, 총서명 등이 있다. 저자나 서명은 이용자가 알고있는 문헌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점이며 주제명이나 분류번호는 막연한 특정주제를 탐색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접근점이다. 예일대(Lipetz 1972, p.136) 목록이용자들은 탐색의 접근점으로 서명(28.5%)보다 저자명(62.0%)을 선호한 반면, 국내 대학도서관의 목록이용자들은 저자명(28.4%)보다는 서명(52.8%)을 탐색의 접근점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번역본에 대한 원저자명의 한글표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는 경기대학교가 73.6%로 가장 높고, 전북대학교가 46.3%로 가장 낮아 평균 56.8%의 비율을 보인다. 즉, 외국저자명을 탐색할 때 한글표기로 탐색하고자 하는 요구는 약 60%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덕성여자대학교 열람목록 현황

덕성여자대학교의 도서목록은 1995년 10월 30일 현재 동서 199,700권, 양서 72,700권으로 총 272,400권의 단행본과 535종의 학술잡지에 대한 목록으로서 자료의 소장여부를 알려주며, 동시에 자료가 배열되어 있는 서가에서의 위치를 알려준다.

도서목록은 동서목록, 양서목록, 분류목록의 세 종류로 대별된다. 동서목록과 양서목록 안에서는 저자카드와 서명카드가 섞여있으면서 저자나 서명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혼합배열되어 있는 사전체 목록이다. 분류목록은 목록카드가 분류번호순으로 배열된다. 본교 도서관은 듀이십진분류표 제 16판과 제 20판에 의거하여 자료를 분류한다.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KCR) 3판과 영미목록규칙(AACR) 2판에 준하고 있다. 목록카드의 표기중 번역서의 경우 저자명카드를 작성할 때 저자명을 원어로 표기한 저자명 카드를 양서목록함에 배열한다. 원저자명의 한글표기명 저자카드를 만들지 않는 단일기입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2 조사방법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의 열람목록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학부학생, 대학원생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도서관학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세 명의 조사자는 도서관의 자유열람실 이용자들에게 접근하여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1995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 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질문지를 배포한 후 조사대상자가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즉시 질문지를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00명의 조사

대상자중에서 278명의 질문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2.7%이다.

질문지는 총 13문항으로 다음과 같이 네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자의 전공학과와 학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목록이용 실태에 관한 질문으로 목록이용상황, 목록이용빈도, 목록이용의 난이도, 목록이용의 어려움의 원인을 묻는다.

셋째, 목록탐색에 관한 사항으로 탐색의 성공률, 탐색접근점, 참조카드사용여부, 번역본 검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넷째, 목록이용 교육에 관한 질문으로 목록이용법 습득 동기와 목록이용법 교육의 효과에 대해 묻는다.

4. 연구결과

4.1 응답자 특성

응답자를 학년구성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12.6%, 2학년이 19.8%, 3학년이 31.7%, 4학년이 33.1%, 기타가 2.9%로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응답자와 대학원생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는 4학년 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1학년이 가장 적게 참여하였다.

〈표 2〉 응답자의 학년별 구성비

학 년	응답자 수(%)
1학년	35 (12.6)
2학년	55 (19.8)
3학년	88 (31.7)
4학년	92 (33.1)
기 타	8 (2.9)
계	278 (100.1)

〈표 3〉 응답자의 단과대학별 구성비

단과 대학	응답자 수(%)
인 문 대	88 (31.7)
사 회 대	75 (27.0)
자 연 대	69 (24.8)
약 학 대	30 (10.8)
예 술 대	8 (2.9)
기 타	8 (2.9)
계	278 (100.1)

응답자 278명을 대학별로 분석하면 인문대가 31.7%, 사회대가 27.0%, 자연대가 24.8%. 약학대가 10.8%, 예술대가 2.9%를 각각 차지하였다.

4.2 목록이용

4.2.1 목록이용률

동서목록, 양서목록, 분류목록의 세 종류의 목록중 이용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목록은 동서목록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1.8%가 동서목록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류목록이 26.3%로서 동서목록 다음으로 애용된 반면, 양서목록은 8.3%로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본교의 동서목록 이용률 61.8%는 이대의 62.8%, 전북대의 64.4%와 비교할 때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이용에 학년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바는 2,3,4학년은 동서목록, 분류목록, 양서목록순으로 목록을 이용한 반면 1학년은 분류목록을 동서목록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록이용에 단과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사회대는 타단과대에 비해 동서목록이용률이 73.3%로서 가장 높은 반면에, 예술대 학생의 동서목록 이용률은

37.5%로 가장 낮다. 반면에 분류목록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단대는 예술대로서 이용률은 62.5%이다. 예술대는 인문/사회대보다 약 세배가량 많이 분류목록을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서목록 이용비율이 가장 높은 단과대학은 자연대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단과대학별로 목록이용행태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목록이용행태의 단과대학별 특성은 목록구축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예술자료에 대한 주제명 접근 요구가 많기 때문에 목록에서 주제명 접근이 쉽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외에도 용어의 특정성이 높은 주제명을 부여함으로써 목록의 주제검색기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표 4〉 목록이용률/학년별

주로 이용하는 목록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동서목록	11(31.4)	36(65.5)	58(65.9)	62(67.4)	5(62.5)	172(61.8)
양서목록	6(17.1)	3(5.5)	7(8.0)	7(7.6)	0(0.0)	23(8.3)
분류목록	14(40.0)	16(29.1)	20(22.7)	20(21.7)	3(37.5)	73(26.3)
무 응 답	4(11.4)	0(0.0)	3(3.4)	3(3.3)	0(0.0)	10(3.6)
계	35(99.9)	55(100.1)	88(100.0)	92(100.0)	8(100.0)	278(100.0)

〈표 5〉 목록이용률/ 단대별

주로 이용하는 목록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약학대	예술대	기 타	계
동서목록	57(64.8)	55(73.3)	35(50.7)	17(56.7)	3(37.5)	5(62.5)	172(61.8)
양서목록	10(11.4)	2(2.7)	9(13.0)	2(6.7)	0(0.0)	0(0.0)	23(8.3)
분류목록	18(20.5)	16(21.3)	24(34.8)	7(23.3)	5(62.5)	3(37.5)	73(26.3)
무 응 답	3(3.4)	2(2.7)	1(1.5)	4(13.3)	0(0.0)	0(0.0)	10(3.6)
계	88(100.1)	75(100)	69(100)	30(100)	8(100)	8(100)	278(100)

〈표 6〉 목록이용빈도

주로 이용하는목록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1-2회 정도	7(20.0)	2(3.6)	6(6.8)	4(4.3)	1(12.5)	20(7.2)
3-4회 정도	5(14.3)	9(16.4)	14(15.9)	16(17.4)	0(0.0)	44(15.8)
5회 이상	10(28.6)	17(30.9)	15(17.0)	21(22.8)	0(0.0)	63(22.7)
10회 이상	10(28.6)	18(32.7)	32(36.4)	29(31.5)	4(50.0)	93(33.5)
20회 이상	3(8.6)	9(16.4)	19(21.6)	22(23.9)	2(25.0)	55(19.8)
무 응 답	0(0.0)	0(0.0)	2(2.3)	0(0.0)	1(12.5)	3(1.1)
계	35(100.1)	55(100)	88(100)	92(99.9)	8(100)	278(100)

4.2.2 목록이용빈도

도서목록을 이용하는 횟수는 한 학기에 평균 1-2회가 7.2%, 3-4회가 15.8%, 5회 이상이 22.7%, 10회 이상이 33.5%, 20회 이상이 19.8%로 나타나고 있다. 10회 이상과 20회 이상 이용을 합하면 53.3%로서 응답자의 반수이상은 목록을 활발히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이용자를 구분하면 10회와 20회 이상 목록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3학년이 58.0%로 가장 많고 4학년이 55.4%, 2학년이 49.1%, 1학년이 37.2%의 순으로 나타나 3학년이 가장 활발하게 목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3 목록이용 난이도

목록이용이 쉽다고 응답한 학생은 49.3%로서 전북대의 68.4%와 이화여자대학교의 68.9%, 경북 5개대의 53.0%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기대의 44.4%에 비하면 목록이용을 쉽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반면에 이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31.3%이다. 기타 응답자가 18.7%나 되는데 이용할 줄 모르거나 판단을 유보한 이용자로 이들은 이용을 어렵게 생각하는 잠재적 이용자로 간주한다면 목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용자 비율은 50.0%에 이르고 있다. 목록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용자를 도와줄 수 있는 도서관의 배려가 요구된다. 정기적으로 목록이용 오리엔테이션을 학기중에 실시하거나 개인적인 사서의 도움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

〈표 7〉 목록이용 난이도 / 학년별

주로 이용하는 목록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이용하기 쉽다	13(37.1)	25(45.5)	48(54.5)	47(51.1)	4(50.0)	137(49.3)
이용하기 어렵다	17(48.6)	20(36.4)	25(28.4)	22(23.9)	3(37.5)	87(31.3)
기 타	5(14.3)	9(16.4)	14(15.9)	23(25.0)	1(12.5)	52(18.7)
무 응 답	0(0.0)	1(1.8)	1(1.1)	0(0.0)	0(0.0)	2(0.7)
계	35(100)	55(100.1)	88(99.9)	92(100)	8(100)	278(100)

〈표 8〉 목록이용 난이도 / 단대별

주로 이용하는 목록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약학대	예술대	기 타	계
이용하기 쉽다	43(48.9)	51(68.3)	26(37.7)	11(36.7)	2(25.0)	4(50.0)	137(49.3)
이용하기 어렵다	24(27.3)	15(21.7)	28(40.6)	13(43.3)	4(50.0)	3(37.5)	87(31.3)
기 타	21(23.9)	8(10.7)	15(21.7)	5(16.7)	2(25.0)	1(12.5)	52(18.7)
무 응 답	0(0.0)	1(1.3)	0(0.0)	1(3.3)	0(0.0)	0(0.0)	2(0.7)
계	88(100.1)	75(100)	69(100)	30(100)	8(100)	8(100)	278(100)

목록사용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48.6%, 2학년이 36.4%, 3학년이 28.4%, 4학년이 23.9%로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수가 감소하고 있어 목록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목록이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예술대가 50.0%로 가장 많고, 약학대 43.3%, 자연대 40.6%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인문대(27.3%)와 사회대(21.7%)는 기타 단대생들에 비해 비교적 목록이용을 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2.4 목록이용이 어려운 이유

목록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구체적인 주제명이 없어서가 47.1%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87명중 47.1%인 41명이 목록을 주제검색용으로 사용할 때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명이 없는것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는 41명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은 5명(12.2%), 2학년은 9명(45.0%), 3학년은 14명(56.0%), 4학년은 12명(54.5%)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제명이 없어서 목록사용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학년이 될수록 목록을 알고 있는 자료를 찾는 도구로 사용하기 보다는 주제검색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목록사용이 어려운 두번째의 이유는 목록이용방법을 모른다는 것으로서 87명중 19.5%인 17명이 지적하였다. 대학도서관의 복잡한 목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제 사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류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목록사용이 어렵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87명중 7명으로 8.0%에 달했다. 탐색주제명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용자인 셈이다.

목록사용이 어려운 이유로 구체적인 주제명이 없는것(47.1%)과 분류번호를 모르는 것(8.0%)을 같은 범주로 취급하면 55.1%의 이용자가 주제명으로 접근하기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도서목록이 주제명 검색도구의 역할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도서목록에서 주제검색을 하려면 분류번호로 목록에 접근해

〈표 9〉 목록이용이 어려운 이유/학년별

목록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구체적인 주제명이 없어서	5(29.4)	9(45.0)	14(56.0)	12(54.5)	1(33.0)	41(47.1)
이용방법을 잘 몰라서	5(29.4)	2(25.0)	3(12.0)	4(18.2)	0(0.0)	17(19.5)
목록 배열이 잘못 되어서	3(17.6)	0(0.0)	1(4.0)	4(18.2)	0(0.0)	8(9.2)
분류번호를 잘 몰라서	1(5.9)	1(5.0)	3(12.0)	2(9.1)	0(0.0)	7(8.0)
기 타	3(17.6)	4(20.0)	4(16.0)	0(0.0)	2(67.0)	13(14.9)
무 응 답	0(0.0)	1(9.0)	0(0.0)	0(0.0)	0(0.0)	1(1.1)
계	17(99.9)	20(100)	25(100)	22(100)	3(100)	87(100)

< 표 10 > 목록탐색의 성공률 / 학년별

목록을 이용한 결과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성공적으로 찾는다	4(11.4)	9(16.4)	16(18.2)	15(16.3)	2(25.0)	46(16.5)
목록에는 있으나 서가엔 없다	23(65.7)	40(72.7)	66(75.0)	61(66.3)	6(75.0)	196(70.5)
성공적으로 찾지 못한다	6(17.1)	5(9.1)	4(4.5)	13(14.1)	0(0.0)	28(10.1)
기 타	1(2.9)	1(1.8)	1(1.1)	2(2.2)	0(0.0)	5(1.8)
무 응 답	1(2.9)	0(0.0)	1(1.1)	1(1.1)	0(0.0)	3(1.1)
계	35(100)	55(100)	88(99.9)	92(100)	8(100)	287(100)

야 하는데 주제명을 확인하고 주제명을 분류번호로 변환하는 과정에 도서목록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점이다. 현재의 도서목록이 제공하는 주제명은 중분류정도의 주제명 이므로 보다 용어의 특정성이 높은 주제명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4.3 목록탐색

4.3.1 탐색성공률

원하는 자료를 목록에서 성공적으로 찾았는지를 표 12로 살펴본 바는 응답자의 16.5%인 46명만이 목록탐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에는 있으나 서가에 없다고 응답한 70.5%를 일단 목록탐색 성공으로 간주하면 응답자의 87.0%는 목록카드를 찾는다는 일단 성공했다고 하겠다. 목록카드탐색에 성공하지 못한 이용자는 10.1%에 불과했다.

일단 목록탐색에서 성공한 이용자 278명중 87.0%인 242명을 학년별로 분석하면 표 13과 같다. 1학년은 35명중 27명인 77.1%가, 2학년은 55명중 49명인 89.1%가, 3학년은 88명중 82명인 93.2%가, 4학년은 92명중 76명인 82.6%가 탐색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가면서 목록탐색성공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목록탐색의 성공률 / 단대별

목록을 이용한 결과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약학대	예술대	기 타	계
성공적으로 찾는다	8(9.1)	17(22.7)	14(20.3)	4(13.3)	2(25.0)	2(25.0)	46(16.5)
목록에는 있으나 서가엔 없다	71(80.7)	49(65.3)	43(62.3)	22(62.5)	2(25.0)	6(75.0)	196(70.5)
성공적 탐색 경우가 드물다	8(9.1)	5(6.7)	10(14.5)	3(25.0)	2(25.0)	0(0.0)	28(10.1)
기 타	0(0.0)	3(4.0)	2(2.9)	0(16.7)	0(0.0)	0(0.0)	5(1.8)
무 응 답	1(1.1)	1(1.3)	0(0.0)	1(3.3)	0(0.0)	0(0.0)	3(1.1)
계	88(100)	75(100)	69(100)	30(99.9)	8(100)	8(100)	278(100)

목록탐색 성공률을 단대별로 살펴보면 인문대의 89.8%, 사회대의 88.0%, 약학대의 86.6%, 자연대의 82.6%, 예술대의 75.0%의 이용자가 목록에 성공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중 목록탐색성공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인문대가 약 90%로 가장 높고, 예술대가 75%로 가장 탐색성공률이 낮다.

4.3.2 탐색 접근점(Access Point)

응답자의 74.5%는 알고 있는 자료를 목록에서 찾을 때의 접근점으로 서명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다음으로 18.3%의 응답자가 저자명을 접근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2.8%의 이용자가 서명접근과 저자접근 방법으로 알고있는 자료를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명접근비율이 높아짐을 볼 수 있으며, 저자접근비율이 가장 높은 학년은 1학년임을 보여준다.

이용자들의 서명접근비율은 74.5%로 나타났는데 이화여자대학교 57.8%, 전북대학교 49.4%, 경북대 53.0%, 경기대 51.0%등의 타대학의 서명접근비율과 비교해 볼 때 약 20%이상 높은 편이다. 반면에 이용자들의 저자명 접근비율은 18.3%로 보고되었는데 이화여자대학교의 저자명 접근비율 25.3%와 전북대 23.4%, 경북대 31.0%, 경기대

〈표 12〉 탐색의 접근점 / 학년별

알고 있는 자료 검색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서 명	22(62.9)	43(78.2)	63(71.6)	74(80.4)	5(62.5)	207(74.5)
저자명	10(28.6)	7(12.7)	20(22.7)	13(14.1)	1(12.5)	51(18.3)
총서명	1(2.9)	1(1.8)	2(2.3)	2(2.2)	1(12.5)	7(2.5)
직접서가로간다	2(5.7)	4(7.3)	2(2.3)	3(3.3)	1(12.5)	12(4.3)
무 응 답	0(0.0)	0(0.0)	1(1.1)	0(0.0)	0(0.0)	1(0.4)
계	35(100.1)	55(100.0)	88(100.0)	92(100.0)	8(100.0)	278(100)

〈표 13〉 탐색의 접근점 / 단대별

알고 있는 자료 검색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약학대	예술대	기 타	계
서명	67(76.1)	58(77.3)	49(71.0)	24(80.0)	4(50.0)	5(62.5)	207(74.5)
저자명	15(17.1)	13(17.3)	16(23.2)	4(13.3)	2(25.0)	1(12.5)	51(18.3)
총서명	4(4.5)	2(2.7)	0(0.0)	0(0.0)	0(0.0)	1(12.5)	7(2.5)
직접서가로간다	2(2.3)	2(2.7)	0(5.8)	1(3.3)	2(25.0)	1(12.5)	12(4.3)
무 응 답	0(0.0)	0(0.0)	0(0.0)	1(3.3)	0(0.0)	0(0.0)	1(0.4)
계	88(100.0)	75(100.0)	69(100.0)	30(99.9)	8(100.0)	8(100.0)	278(100.0)

33.7%에 비하면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의 2/3 정도가 서명으로 목록에 접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 탐색의 접근점으로 서명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저자명은 탐색의 접근점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탐색의 접근점에 단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해 보면 표 15 와 같다. 단과대학 중에서 약학대는 주로 서명으로 접근하고(80.0%), 자연대(71.0%)와 예술대(50.0%)는 상대적으로 서명접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자접근 비율을 단과대학별로 보면 예술대가 25.0%로 가장 높고 약학대가 13.3%로 저자접근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과대학별로 탐색의 접근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목록

〈표 14〉 주제검색시 접근방법

주제검색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분류번호로	10(28.6)	11(20.0)	33(37.5)	36(39.1)	2(25.0)	92(33.1)
주제명	2(5.7)	8(14.5)	12(13.6)	13(14.1)	1(12.5)	36(12.9)
주제와 비슷한 서명	12(34.3)	26(47.3)	29(33.0)	24(26.1)	2(25.0)	93(33.5)
주제분야에서 저자명	1(2.9)	2(3.6)	2(2.3)	5(5.4)	1(12.5)	11(4.0)
서지, 색인지	10(28.6)	7(12.7)	6(6.8)	13(14.1)	1(12.5)	37(13.3)
기 타	0(0.0)	1(1.8)	5(5.7)	1(1.1)	1(12.5)	8(2.9)
무 응 답	0(0.0)	0(0.0)	1(1.1)	0(0.0)	0(0.0)	1(0.4)
계	35(100.1)	55(99.9)	88(100.0)	92(99.9)	8(100.0)	278(100.1)

〈표 15〉 참조카드 사용

참조카드에 관해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참조카드 지시대로함	19(54.3)	37(67.3)	70(79.5)	74(80.4)	7(87.5)	207(74.5)
포기한다	4(11.4)	8(14.5)	10(11.4)	12(13.0)	1(12.5)	35(12.6)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6(17.1)	4(7.3)	3(3.4)	2(2.2)	0(0.0)	15(5.4)
참조카드를 본적 없음	6(17.1)	6(10.9)	3(3.4)	2(2.2)	0(0.0)	17(6.1)
기 타	0(0.0)	0(0.0)	1(1.1)	2(2.2)	0(0.0)	3(1.1)
무 응 답	0(0.0)	0(0.0)	1(1.1)	0(0.0)	0(0.0)	1(0.4)
계	35(99.9)	55(100.0)	88(99.9)	92(100.0)	8(100.0)	278(100.1)

구축에 반영되어야 할 요인으로 예술분야의 저자명에 대한 저자전거화일이 요청되는 반면에 자연과학 쪽은 저자전거가 그다지 시급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3.3 주제검색방법

주제명으로 자료를 찾아야할 경우, 33.5%의 이용자들은 주제명과 비슷한 서명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류목록에서 분류번호로 접근한다는 이용자는 33.1%에 불과했다. 한편 주제명으로 찾는다는 이용자 12.9%이며, 주제명과 비슷한 서명에서 찾는다는 이용자 33.5%를 합치면 46.4%의 이용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주제명으로 검색하는 이용자들이다. 목록탐색시 주제명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이터라 하겠다.

4.3.4 참조카드 이용

목록사용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비치한 참조카드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참조카드의 지시를 따르는 응답자는 278명중 74.5%인 207명으로 나타나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이용자가 참조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참조카드를 통한 목록검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 참조카드 사용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학년이 올라갈 수록 참조카드사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5 번역본 탐색

본교 도서관은 번역본에 대한 접근점 중 저자명에 대해서는 원저자명으로 목록카드를 만들어 양서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글 저자명으로 별도의 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28.1%는 한글 저자명카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저자명과 한글 저자명카드를 모두 원하는 응답자는 51.8%로 나타나 약 80%의 응답자가 현행 번역본 탐색방법이 주는 접근점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저자와 한글 저자명카드를 모두 원하는 79.9%의 응답자를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74.3%, 2학년이 81.8%, 3학년이 79.6%, 4학년이 83.7%로 나타나 4학년이 가장 번역본의 이중표기에 대한 요구가 절실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번역본의 이중표기방법을 원하는 응답자를 단대별로 살펴보면 인문대가

〈표 16〉 번역본 탐색의 접근점 / 학년별

번역본 탐색방법시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만족한다	6(17.1)	3(5.5)	14(16.0)	8(8.7)	2(25.0)	33(11.9)
한글저자 탐색원함	8(22.9)	16(29.1)	30(34.1)	23(25.0)	1(12.5)	78(28.1)
원어와 한글 둘다원함	18(54.1)	29(52.7)	40(45.5)	54(58.7)	3(37.5)	144(51.8)
찾기힘들다	2(5.7)	1(1.8)	1(1.1)	4(4.3)	2(25.0)	10(3.6)
기 타	0(0.0)	4(7.3)	0(0.0)	2(2.2)	0(0.0)	6(2.2)
무 응 답	1(2.9)	2(3.6)	3(3.4)	1(1.1)	0(0.0)	7(2.5)
계	35(100.0)	55(100.0)	88(100.1)	92(100.0)	8(100.0)	278(100.1)

〈표 17〉 번역본 탐색의 접근점 / 단대별

번역본 탐색방법시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약학대	예술대	기 타	계
만족한다	8(8.7)	12(16.0)	6(8.7)	4(13.3)	1(12.5)	2(25.0)	33(11.9)
한글저자 탐색원함	22(25.0)	24(32.0)	22(31.9)	7(23.3)	2(25.0)	1(12.5)	78(28.1)
원어, 한글 원함	50(56.8)	37(49.3)	37(53.6)	14(46.7)	3(37.5)	3(37.5)	144(51.8)
찾기힘들다	3(3.4)	0(0.0)	4(5.8)	1(3.3)	0(0.0)	2(25.0)	10(3.6)
기 타	3(3.4)	1(1.3)	0(0.0)	1(3.3)	1(12.5)	0(0.0)	6(2.2)
무 응 답	2(2.3)	1(1.3)	0(0.0)	3(10.0)	1(12.5)	0(0.0)	7(2.5)
계	88(100.0)	75(99.9)	69(100.0)	30(99.9)	8(100.0)	8(100.0)	278(100.1)

〈표 18〉 목록이용법 습득 경로

목록이용법 습득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사서 통해서	0(0.0)	1(1.8)	1(1.1)	0(8.7)	0(0.0)	2(0.7)
강의 통해서	5(13.9)	15(26.3)	15(17.0)	22(8.7)	2(28.6)	59(21.1)
목록이용책자 안내로	0(0.0)	3(5.3)	7(8.0)	6(25.0)	2(28.6)	18(6.4)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12(33.3)	21(36.8)	39(44.3)	38(58.7)	0(0.0)	110(39.3)
스스로 터득	16(44.4)	15(26.3)	22(25.0)	21(4.3)	3(42.9)	77(27.5)
기 타	3(8.3)	1(1.8)	3(3.4)	5(2.2)	0(12.5)	12(4.3)
무 응 답	0(0.0)	1(1.8)	1(1.1)	0(1.1)	0(0.0)	2(0.7)
계	36(99.9)	57(100.1)	88(99.9)	92(99.9)	7(100.1)	280*(100.0)

〈표 19〉 목록이용법 교육 평가/학년별

탐색 결과에 대해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기 타	계
도움이 된다	5(29.4)	22(55.0)	30(48.4)	36(4.5)	1(25.0)	94(49.7)
불충분하다	10(58.8)	14(35.0)	19(30.6)	21(31.8)	3(75.0)	67(35.4)
사서도움 필요하다	1(5.9)	4(10.0)	12(19.4)	9(13.6)	0(0.0)	26(13.8)
기 타	1(5.9)	0(0.0)	1(1.6)	0(0.0)	0(0.0)	2(1.1)
계	17(100.0)	40(100.0)	62(100.0)	66(99.9)	4(100.0)	189(100.0)

81.8%, 사회대가 81.3%, 자연대가 85.5%, 약학대가 70.0%, 예술대가 62.5%로 나타나 자연대가 가장 높고 예술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저자명을 자주 접하는 인문대의 이용자들은 외국 저자명 아래에 저서, 비평서, 번역서 등을 함께 배열하는 현 목록체제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의외로 인문대의 81.8%의 이용자가 번역본의 이중표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현행 목록체제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4 목록이용법 교육

4.4.1 목록이용법 습득경로

목록이용법을 교육받은 경로는 도서관 오리엔테이션이 39.3%로 가장 많고, 스스로 터득이 27.5%, 강의를 통한 수업이 21.1%로 나타났으며, 사서를 통한 교육은 0.7%로 나타났다.

4.4.2 목록이용법 만족도

사서, 강의, 안내책자, 도서관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목록이용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한 189명에게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표19에서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49.7%로 나타났다. 불충분하다가 35.4%이며, 사서의 도움이 필요하디 13.8%를 불만족 응답자로 간주하면 49.2%의 이용자가 목록이용법 교육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를 통한 목록이용법 교육이나 그외의 교육에 대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약 50%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개별 목록이용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도서관 열람목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도서관소장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을 도서관의 자료에로 안내해주고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자료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열람목록이 실제로 대학도서관의 이용자에게 얼마나 봉사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목록이용실태를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다.

- 1) 동서목록, 양서목록, 분류목록의 세 목록중에서 대학도서관이용자들은 동서목록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61.8%)으로 나타나 동서목록 위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서목록을 중심으로 자료를 탐색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동서목록의 탐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목록이 구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단과대학별로 목록이용행태에 차이를 보이는데 예술대는 단과대학에 비해 분류목록이용률(62.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관련자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제접근요구가 분류목록구축시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2) 덕성여자대학교의 열람목록은 사용하기에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이용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49.3%로서 대학평균치 58.7%(표1 참조)보다 약 10%나 낮은 비율이다.
- 3) 목록이용이 어려운 원인으로 구체적인 주제명이 없어서가 47.1%로 가장 많고 분류번호를 모름이 8.0%로서 55.1%의 이용자가 어떤 주제명을 사용해야 할 지를 모르는 상황을 대변한다. 이용자들은 주제접근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목록의 주제검색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4) 목록카드에서 원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을 목록탐색의 성공이라고 정의할 때 성공적으로 목록을 찾은 경우 16.5%와 목록에는 있으나 서가에 없는 경우 70.5%를 목록탐색 성공으로 간주하면 이용자의 87.0%는 목록에서의 탐색에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목록탐색 성공률 87.0%를 타대학들의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경기대 39.0%, 전북대 62.9%, 이화여자대학교 70.8%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관찰되었다.
- 5) 이용자들이 알고 있는 자료검색시 주로 사용하는 탐색의 접근점을 살펴본 바는 저자접근이 18.3%이며 서명접근이 74.5%로 나타나 저자와 서명으로 접근하는 비율은 92.8%에 달한다. 서명접근비율 74.5%는 타 대학의 평균 서명접근비율인 52.8%에 비해 21.7%나 높은 비율이다. 반면에 저자접근비율 18.3%는 타대학의 평균 저자접근비율 28.4%에 비해 10.1% 낮은 비율이다. 본교 이용자들은 서명을 탐색의 주요접근점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 6) 이용자들의 주제검색행태를 살펴보면(표14 참조) 주제로 검색해야 할 경우에 분

류목록에서 분류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33.1%에 불과하여 목록의 주제검색 기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33.5%의 이용자가 주제와 비슷한 서명으로 찾고 있으며 12.9%는 주제명으로 찾겠다고 응답함으로써 총 이용자의 46.4%가 존재하지도 않는 주제명을 탐색의 접근점으로 사용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이용자가 요구하는 번역본에 대한 탐색의 접근점을 살펴보면 이화여자대학의 경우 이용자의 37.1%는 한글표기와 원어표기의 이중기입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표기 카드를 원한다는 이용자 28.1%와 이중표기를 원하는 이용자 37.1%를 합하면 총 50.5%의 이용자가 한글표기나 그렇지 않으면 이중표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표기 및 한글/원어의 이중표기를 원하는 비율은 전북대가 이용자의 46.3%, 경기대가 73.6%로 관찰되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79.9%의 이용자가 한글표기 및 이중기입을 원하고 있어 타대학과 비교해볼때 번역본의 한글과 원어표기를 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이용자가 번역본의 한글 저자명 카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목록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 제 언

- 1) 목록의 주제검색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한글주제명 목록이 없기 때문에 대학도서관들은 주제명카드대신에 분류번호로 주제명을 대체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현행 수준의 목록은 한글 주제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목록체제로 전환될 필요성을 강력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들의 분류목록 이용비율이 26.3%로서 저조한 것을 볼 때 이용자편의의 한글주제명 접근이 시급히 요청된다. 더우기 동서목록에서는 주제명을 주지않지만 양서목록에서는 LC주제명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두 목록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므로 혼란을 줄 수도 있다.
- 2) 이화여자대학교가 1980년에 수행한 조사에서 이용자들은 카드목록이용시 사용된 탐색의 접근점으로 서명(57.8%), 저자명(25.3%), 주제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1993년 동 대학이 조사한 온라인목록 이용실태조사에서는 탐색의 접근점이

서명(36.8%), 키워드(26.4%), 저자(27.1%)순으로 선호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서명접근비율은 약 20% 감소하였으나 주제탐색비율은 약 10% 증가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외국의 온라인 목록연구결과(Matthews et.al 1983)도 비슷한 양상을 보고한 바 있는데 온라인목록이 주제검색, 저자검색, 서명검색순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Alabama 대학의 온라인 목록(Kaske 1988)연구에서는 주제탐색이 47.4%로서 저자탐색 24.1%나 서명탐색 28.5%보다 약 두배 정도나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같은 추세를 살펴볼 때 카드목록이 온라인목록으로 전환된다면 이용자들의 주제명으로서의 탐색요구는 더 늘어날 것이 전망되므로 주제탐색을 대비하여 한글주제명 부여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 3) 한글주제명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류번호를 사용하기 쉽도록 보다 친절한 안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주제명 색인을 제공하여 이용자는 원하는 주제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기능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4)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번역서에 대한 외국저자명의 한글표기명 카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외국저자명 아래에서 번역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원저자명의 영문 표기명을 확인한 후에 양서목록으로 가야하므로 두번의 탐색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욱이 양서목록이용률이 8.3%로서 극히 저조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목록의 이용자해요인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카드목록을 온라인목록으로 그대로 전환한다할 때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온라인 목록에서도 외국저자의 한글저자명 표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국저자에 대해 한글표기명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글표기명을 탐색의 접근점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저자전화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5) 목록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용자의 19.5%(표9 참조)는 목록이용방법을 몰라서라고 지적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목록이용교육이 보다 개별적으로 또한 정기적으로 계속하여 실시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의 목록이용교육이 불충분하고 사서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용자가 49.2%(표19 참조)로 나타나 도서관은 정규 교육프로그램 외의 보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목록이 가동된다면 이와같은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영. 1982. "대학도서관의 목록이용행태의 일 고찰," 도서관학논집 9 : 1-32.
- 박은자. 1981. 도서관목록이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열람목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의남. 1989. 대학도서관 이용자 목록이용에 관한 연구 - 경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달현. 1982. "대학도서관의 목록이용연구," 도서관학논집 9 : 241-266.
- Jackson, Sidney. 1958. *Catalog Use Study*. Chicago : A.L.A.
- Kaske, Neal K. 1988. A Comparative Study of Subject Searching in an OPAC among "Branch Libraries of a University Library System," *Information Technology & Library* 7,4 : 359-72.
- Lipetz, Ben-Ami. 1972. "Catalog Use in a Large Research Library," *Library Quarterly* 42,3 : 302-315.
- Maltby, Arthur & Sweeny, Russel. 1972. "The UK Catalog Use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4,3 : 188-204.
- Matthews, J.R., Lawlence, G.S. and Ferguson, D.K. 1983. *Using Online Catalog: A Nationwide Survey, A Report of a Study Sponsored by the Council on Library Resources*, New York: Neal-Schuman.
- Palmer, P. Richard. 1972. *Computerizing the Card Catalog in the University Library*. Littleton, Colo. : Libraries Unlimited.
- Tagliacozzo, R and Kochen, M. 1970.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Catalog Users,"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6 : 368-381.

ABSTRACT

A Study of Card Catalog Use in a University Library

Jae-Ok Y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gree to which the card catalog in a university library serves its users an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design of conversion from card catalog to online catalog. From August 19th to September 16th 1995, 278 users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Library were randomly selected and surveyed in terms of card catalog use, success rate of card searching, and catalog use training receiv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aking into considerations the fact that Library users tended to use more heavily oriental card catalog(61.8%) than western card catalog(8.3%) or classification card catalog(26.3%), oriental card catalog should be designed to improve its search function of the catalog.
2. It was found that the university library card catalog was not easy to use by 49.3% of the users of Duksung University Library.
3. One of main reasons why the card catalog is hard to use is that there is no subject card to which users can access for subject searching. Besides, users have difficulties in locating appropriate classification numbers for subjects which users are interested in.
4. When success rate is defined as finding appropriate cards in catalog boxes, the success rate was reported to be 87.0%.
5. The major access points of known items which library users utilized mostly were author(18.3%) and title(74.5%).
6. In case of translated versions of foreign materials, original author name cards

instead of pronounced original name card written in Korean were given to them as access points. 79.9% of library users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insisted that both original and pronounced author name written in Korean should be given as access points to foreign authors for the sake of user's convenience.

7. Formal training programs for card catalog use were found not to be sufficient. Small group informal training courses should be offered to users who need to get information for catalog use by library staffs.
8. Considering the trend that orders of access points have been changed from title, author and subject in card catalog to title, keyword, and author in online catalog, the existing card catalog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is expected not to meet future users' needs for subject searching unless the functions of subject searching of catalog is improved.